



‘도민주권’ 실현, 도청사 전면개방

전북도, 청사 출입 훈령
개정 마치고 본격 시행
방문증 발급 절차 삭제
비상상황 시 제한 운영
청원경찰 임무, 보안강화
방문객 안내 중심설정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도민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청사를 전면 개방했다.

도는 도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사 출입 관련 훈령 개정을 마치고, 이날부터 개방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서는 도민 편의를 위해 그동안 명시돼 있던 방문증 발급 절차 조항을 삭제했다. 방문객 확인 절차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청원경찰의 임무도 방문증 발급 관련 업무를 없애는 대신, 청사 보안 강화와 방문객 안내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했다.

그동안 도청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청사가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



‘전주수산시장 화재 진압 중’

전북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청사 개방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각 부서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는 개방에 따른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해 출입증 발급을 맡던 청원경찰의 역할을 시설 안내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주수산물시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10일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청사 내부와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스피드게이트를 가동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서별 사무실 출입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전면 개방은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도청이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민주권 전북시대’는 청사의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도민들께서 행정의 주인임을 일상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기업 유치 넘어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민주 김의겸 의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새만금 정착 근로자에 근로소득세 10년간 전액 면제”

새만금에 취업해 지역에 실제 정착하는 근로자에 게 10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0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지원·윤준병·김우영·박희승·오세희·이건태·이정현·조인철·허성무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새만금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새만금 사업 지역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세제 인센티브는 부족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근로자들이 전주·익산 등 인근 도시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지역의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생활권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 근로자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할 경우 그 이후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도록 해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형식적인 전입을

통한 세제 혜택을 차단했다.

새만금을 ‘기업이 들어오는 곳’에서 ‘사람이 남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 새만금에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새만금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그동안 막대한 투자와 기업 유치가 지역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와 함께 근로자와 가족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 소비를 늘리고, 학교·주거·생활 서비스 등 지역의 정주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의원은 “기업 유치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착 사람이 남지 않는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정도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지방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지리특성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이른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새만금이 보유한 광활한 부지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 기업 유치와 에너지 자립, 근로자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새만금을 단순한 산업단지나 국책사업의 차원을 넘어 기업·일자리·재생에너지·정주 인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만호 기자·윤산·김만호 기자

민주 전북자치도당, 15일 원광대서 정기당원대회 개최

윤준병 도당위원장 선출 전망… 당 지도부 전북순회 합동연설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정기당원대회는 당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전북도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단독 후보로 등극한 상태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후보는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며 당과 국회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왔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정기당원대회는 국주영은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도당당원대회 의장단 선출, 윤준병 도당위원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강동화 선거관리위원장이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도당위원장 당선자의 수락

연설을 끝으로 정기당원대회가 마무리된다.

특히 이날 오후 5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전북권 순회 합동연설회도 열린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북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과 당 운영 방향,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에 이어 전남·광주와 전북지역 권리당원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가정형 배란다

태양광 3050세대 보급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가정형(배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해 총사업비 3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3,050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으로 국비 12억 2,000만원, 지방비 12억 2,000만원, 자부담 6억 1,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주로, 가구당 최대 500W 이내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시민 중심,
으뜸 정읍

박창근 가을밤 콘서트

정읍시 홍보대사

2026.9.11.(금)
19:00~21:00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주최·주관 정읍시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2026정읍
문화로대동